

다섯 두루마리 (The five scrolls or the five *megilloth*): 아가서, 룯기, 애가, 전도서, 에스더

- 유대인 성경에서 이 모두는 성문서에 배치된다. => 제1과, "히브리성서와 구약성서 비교"
- 각각의 성경은 유대 예배력과 관련되어 있다.
 - 아가서=> 니산(Nissan) 달—유대 절기 달력으로 첫째 달—제 15일에 지키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(출 12:11-13)을 기념한다. 지금의 3-4월 경에 해당하고, 크리스천들이 지키는 성금요일도 시기상 이와 관련되어 있다.
 - 룯기=> 샤부옷(shavuoth)는 하느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준 것을 기념하며, 유월절 제 50일 째에 해당. 5-6월 경.
 - 애가=> ninth of av (아브 달 제 9일)에 읽으며, 주로 성전(제1, 제2)의 붕괴를 애도하며 금식을 선포한다. 현재 달력으로는 7-8월 경에 해당.
 - 전도서=> 장막절(sukkot, Booths)은 유월절(Pesach, Passover), 칠칠절(shavuoth, weeks)와 함께 3대 순례절기(출 23:14-17; 신명기 16장) 중 하나로, 헤하그(חגג, the holiday)로 불린다. 가장 큰 절기인 셈이다. 9-10 경에 해당.
 - 에스더=> 부림절.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 한 하만의 계락을 물리친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기념. 시기적으로 유월절 전에 해당.

A. 아가서

- 시편처럼 시 모음집으로 히브리성서에서는 읊기 다음에 나오는 다섯 두루마리의 첫 번째로 등장.
 - 잠언, 전도서와 함께 솔로몬왕에게 돌리고 있지만(1:1), 전통일 뿐 실제 저자는 알 수 없다.
 - 아가서는 에스더와 함께 성서에서 하느님을 언급하지 않는 단 두권의 책 중 하나다.
- 남녀의 에로틱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 모음집으로 성서 어디에도 이런 류의 작품은 없다.
 -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. 랍비 아키바(Akiba)는 "모든 성경이 성소라면 아가는 지성소다"(Mishnah, *Yadaim* 3:5)라며 아가서를 지지.
 - 보통 알레고리로 해석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이해.
- 연인에 대한 풍부한 시적 표현
 - 샤론의 장미, 골짜기의 백합, 가시덤불 속의 백합(2:1-2), 바위 틈의 비둘기(2:14)
 - 아름다운 여자의 몸을 묘사(4:1-5:1; 7:1-9)
 - 성서의 다른처럼 남녀의 사랑에 대한 엄격한 법과 규제가 없다. (참고, 신명기 22 장)

B. 룯기

- 룯은 모압 여인으로 예외적 인물
 - 히브리 성서에서 모압은 저주의 대상.
 - 민수기 25 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관계함으로 그들의 신을 섬겨 야훼의 분노 촉발.
 - 신명기 23:3 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누구도 10 대까지 주의 성회에 들지 못하다고 선포.
 - 마태복음 1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인 중 하나 (다말, 라합, 룯, 우리야의 아내).
- 잘 짜여진 단편소설(novella)
 - 1 장: 위기 상황 설정.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 남자가 모압으로 이주. 그의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룯과 결혼하지만 모두 죽고 만다.
 - 2 장: 보아스 등장
 - 시형제 결혼법(levirate law). 신 25:5-10 에 따르면 남자가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을 경우 그 형제가 남은 홀어미와 결혼하여 고인의 후세를 낳아 기를 의무가 있다. 이는 그 가족의 재산을 보존하고 동시에 홀어미를 돌보는 길이다. => 막 12:18-27
 -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형제가 아니고 다만 먼 친척일 뿐. 시형제 결혼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룯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줍기를 하면서 연속극은 점점 흥미진진.

- 3 장: 클라이막스. 나오미는 룯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도록 촉구. 타작마당에서 쉬고 있는 보아스에게 “가만히 가서 그 밭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”(3:7).
- 4 장: 해피엔딩. 보아스는 룯의 문제를 성문 앞 장로들에게 가져오고, 가까운 친척이 룯과 결혼하길 거부하지 자신이 룯을 취한다. 룯은 아이를 갖게 되고, 사람들은 “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”고 말하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된다(4:17).

C. 애가

-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
 - 책 제목 “애가(哀歌)”는 히브리어 ‘*ekah* (אֵיכָה, how!)’. see 1:1; 2:1; 4:1
 - 애가 형식을 갖춘 시로서 도시를 생각하고 부르는 오랜 전통이 기원전 3 천년기 말기인 우르 애가(The Lament for Ur)에도 있다(ANET, 455).
- 포로기 이후에 두드러진 개인책임(individual responsibility) 사상 반영
 -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,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,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(5:7) => “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” (렘 29:30; 겔 18:19-20; 욥 21:30)
 - 무고한 고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
 - 주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륙을 당하오리이까(2:20).
 -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옵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(5:22).

D. 전도서

- 지혜 문학 중 신학적으로 가장 회의적 입장
 - 사후세계에 대하여=> “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”(3:21)
 -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은 그리스 시대 이전 유대교에는 보이지 않고, 에녹서와 다니엘서와 같은 그리스 시대 묵시문학에 비로소 등장한다.
 - 전도서(코헬렛)가 이 문제에 관심/논박하는 것으로 보아,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견해가 당시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아마도 시기적으로 기원전 3 세기 후반일 듯.
- 주요 가르침
 - 헛되고 헛되다
 - 두 개의 시가 처음과 끝을 장식(1:2-11; 11:7-12:7).
 - 헛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(הֶבֶל)은 문자적으로 ‘입김’(vapor, breath)을 뜻한다.
 - 삶을 헛됨으로 여기는 이유는 죽음의 궁극성 때문이다=> “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”(1:3); “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렐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¹⁷ 이따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(הֶבֶל)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”(3:16-17).
 -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시간을 잘 써라
 - 그렇다면, “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”(3:9)
 - 먹고 마시고 주어진 삶을 즐겨야 한다. 정한 기간, 주어진 시간 동안에. 왜? 죽은 후의 일을 누가 알랴? (3:22)
 - 그러나 막 사는 것은 아님. 자신의 하는 일에 선함을 볼 줄 알아야=>전 3:13 절 다시 읽기
 - KJV And also that every man should eat and drink, and enjoy the good of all his labour, it *is* the gift of God.
 - NRSV moreover, it is God's gift that all should eat and drink and take pleasure in all their toil.

- RSV also that it is God's gift to man that every one should eat and drink and take pleasure in all his toil.
- NIV That everyone may eat and drink, and find satisfaction in all his toil-- this is the gift of God.
- 개역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
- 표준새번역 사람이 먹을 수 있고, 마실 수 있고,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,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.
- 공동번역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.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다.
- 여기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하는 말은—“자신의 수고하는 일에 선함을 보는 것이”(רָאָה טוֹב בְּכָל-עֲמָלוֹ)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. (5:18, לְשֹׂמְחָה בְּעֲמָלוֹ "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")
- 중용의 덕
 - ¹⁶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¹⁷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
 - 전도서 12,12 사태. "내 아들이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"(12:12).

E. 에스더

- 시대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생활을 반영
 - 요셉 이야기(이집트 왕궁)와 다니엘 이야기(바빌론과 페르시아 왕궁)처럼 '궁정 이야기' 장르에 속한다.
 - 칠십인역 그리스어 성서에는 히브리 성서에 없는 여섯 개의 긴 문단이 들어있다. 로마 카톨릭 전통에는 이 모두를 정경으로 간주
- 이야기 배경은 아하수어로 왕(Xerxes I, 485-465 BCE)
 - 아하수어로 왕이 연회를 베풀고 자신의 왕비 와스디의 미모를 백성과 대신들 앞에 보이고자 하여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라 명한다(1:11). 왕비는 이를 거절하고 메대와 바사의 법에 따라 목전에서 제거됨. 이 빈 자리를 에스더가 메운다.
 - 유대인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페르시아 궁전에서 겪는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.
 - 아각 사람 하만이 "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" 앉게 되고, 그 앞에 모든 대신들이 무릎을 꿇어 절하난 모르드개는 꿇지도 절도 하지 않는다(3:1-2).
 - 하만이 아하수어로를 부추겨 모든 유대인을 전멸시킬 칙령을 준비
 -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중재를 요청=> "죽으면 죽으리라"(4:16).
 -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 교수대를 준비하지만, 결국 자신이 그 교수대에 매달려 죽음.
 - 유대인의 운명이 바뀌어 왕의 칙령은 폐지되고 오히려 유대인을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 수천 명을 살해함으로 민족멸절의 위기 탈출=> 이를 기념하여 부림절이 생겼다(3:7; 9:26).

생각해 보기

- 1) 다섯 두루마리 문서를 히브리 성서의 위치—성문서—로 읽을 때와 그리스도교 구약성서의 순서를 따라 읽을 때 차이점은?
- 2) 다섯 두루마리 중 아가서와 에스더서는 '하느님'을 언급하지 않는다. 왜 그럴까?